

4 정책동향

1. 대한민국 1등 기업을 세계 1등으로! 소부장 으뜸기업 22개 최초 선정

“핵심전략기술”에 특화된 국내 최고 기업 22개 선정(향후 5년간 100개 선정)
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1월 11일(월) 14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『소부장 으뜸기업 비전 선포식』을 개최하고, 글로벌 소부장 1등 기업으로 성장할 국내 최고 기술기업, “소부장 으뜸기업 22개”를 최초 선정했다.
 - 온-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된 금번 행사에는 22개 소부장 으뜸기업 대표들이 모두 참석해, 으뜸기업 지정서를 수여받고, 소부장 으뜸기업으로서 기업 포부와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.
 - 아울러, 으뜸기업들은 “소부장 으뜸기업의 다짐” 서약을 통해, 디지털 전환, 저탄소·친환경 등 미래에 공동대응하고, 기업간 연대와 협력, 인력양성, 소부장 생태계 강화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.
- 소부장 으뜸기업은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 국내 최고 기술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
 - 작년 4월 전면개편된 “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”과 작년 7월 “소부장 2.0 전략”에 근거를 두고 있다.
- 20.10.12부터 약 3개월 동안 으뜸기업 선정을 신청한 123개 기업을 대상으로 200여명의 전문가가 4단계*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22개 기업이 선정되었다
- 기업규모별로 보면, 대기업 2개, 중견기업 14개, 중소기업 6개 등 균형적으로 선정되었고
 - 분야별로는 반도체·디스플레이 7개, 기계금속 7개, 전기전자 분야 4개, 자동차 3개, 화학 1개가 선정되었다.

< 기업규모별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 >

(단위:개)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합계
선정기업수	2	14	6	22

| 출처 : 산업통상자원부 원문보기

2. 산업부, '21년 인력양성 사업에 2,442억원 투자

○ '21년 산업혁신인재 2.3만명 양성을 목표로 전년대비 43% 증액
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① BIG 3 등 신산업 육성, ② 주력산업 혁신, ③ 탄소중립·에너지 전환, ④ 산학협력·기반구축 등 4개 분야 산업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'21년 총 2,442억원을 투자한다.
 - 이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46% 증가한 것으로, 신산업 육성, 제조업 디지털 전환 등 선도형 산업구조로 나아가기 위해 핵심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산업부의 정책기조가 반영된 것이다.

○ BIG 3등 신산업 육성 ; '20년 315.2억원 → '21년 495.9억원(↑57.3%)

- BIG 3 등 신산업 분야는 지난해보다 57% 증가한 495.9억원을 투자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에 집중한다.
- ① (시스템·인공지능 반도체)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스템·인공지능 반도체의 경우 석·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에 83.4억원을 투입하는 한편, 학부생 대상으로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를 신설하여 기업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.
 - (석·박사) 시스템반도체 설계 분야 석·박사 교육과정을 신설(59.4억원)하고, 90%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력반도체 분야에도 24억원을 투입해 석·박사급 인력을 공급한다.
 - (학사) 아울러, 연세대·고려대·성균관대 등에 반도체 기업이 ①전액 장학금, ②인턴십·실습, ③취업 등을 지원하는 채용연계형 계약학과를 신설하여 年 150명의 학사 인력을 양성한다.

■ 시스템 반도체 분야 '21년 총 81.4억원 투자

- (석·박사) 차세대시스템 반도체 설계 ('21년 신규) 59.4억원
차세대전력 반도체 ('20년) 24억원 → ('21년) 24억원
- (계약학과) ① (연세대-삼성) '시스템반도체공학과' 신설 및 신입생 年 50명 선발('21)
② (고려대-SK) '반도체공학과' 신설 및 신입생 年 30명 선발('21)
③ (성균관대-삼성) '06년 설립한 '반도체시스템공학과'에서 年 70명 선발